

번호 13-2

제 목	국문	우리 나라 개원의사와 한의사의 보완요법 사용, 지식, 태도와 건강관			
	영문	Office Doctors' Experience with and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Practicing Western Medicine or Korean Traditional Medicine			
저 자 및 소 속	국문	강영호, 이상일, 이무송, 구희조, 강위창*, 임병목**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의학통계 및 연구계획자문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영문	Young-Ho Khang, Sang-II Lee, Moo-Song Lee, Hee-Jo Koo, Weechang Kang*, Byung-Mook L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Consulting Unit for Biostatistics and Research Planning, Asan Medical Center*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 표 형 식	구 연 (○) 포 스텐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보완요법에 대한 개원의사와 한의사의 사용경험, 지식과 태도, 건강관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의료제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완요법 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부 개원의사와 한의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비례할당 및 계통적 추출법(proportionate quota and systematic sampling)에 따라 개원의사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1999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협회의 회원자료를 이용하여 의사, 한의사 지역별 분포에 따라 광역 시/도별로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개원의사의 경우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 등 환자진료와 관련성이 적은 전문과목을 제외하고, 주요 전공과목(내/외/산/소/가정의학/정형외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표본수를 재할당하였다. 시/구를 기본 단위로 하여 조사지역을 무작위로 추출, 조사자가 조사대상 의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830명의 개원의사를 방문하였으나, 254명은 설문을 거부, 74명은 설문도중 응답을 거부하여 최종 502명(60.5%)의 의사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한의사는 849명을 방문하였으나, 265명은 설문을 거부, 84명은 설문도중 응답을 거부하여 최종 500명(58.9%)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39명의 조사원을 선발하여, 조사특성, 질문내용, 응답자 선정방법 등에 대해 2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질문지 이해를 위해 조사원 2인이 짝을 지어 조사원과 응답자의 역할을 서로 바꿔 해 보는 역할극을 실시하였으며, 실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각 조사원이 2부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방법을 숙달하였다.

조사원 별로 완료 설문지 중에서 30%를 추출, 질문지에 기록된 개원의사, 한의사의 전화번호 호로 다시 전화하여 조사에 응했는지 여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내용 중 1~2개 문항에 대하여 재질문하여 응답내용의 일치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조사여부, 응답결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해당 조사원 자료(총 12부)를 전량 폐기하고 재조사하였다.

3.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협회 회원자료¹⁾의 지역별 분포(시부 분포)와 유사하였다. 개원의사와 한의사의 성별 분포는 우리 나라 전체 개원의사, 한의사의 그것과 비슷하였지만, 개원의사의 경우 주요 전공과목 비율, 젊은 연령층 비율은 이 연구의 표본에서 높았고, 한의사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한의사의 보완요법 사용경험률과 권유경험률은 각각 76.8%, 85.4%로, 개원의사의 13.7%, 38.6%보다 높았으며, 효능에 대한 믿음도 한의사가 더 긍정적이었다. 개원의사의 21.5%는 '의과대학 교육, 보수교육, 연수강좌, 각종 서적, 언론매체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 보완요법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고, 한의사 중 70.4%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다($P=0.001$). 개원의사의 35.9%는 보완요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었고, 30.7%는 '연구비 등의 여건이 주어지면 보완요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할 의향'이 있었다. 한의사는 연령이 적을수록, 임상경력기간이 짧을수록 보완의학 사용경험률이 높았다(X^2_{trend} test, $P<0.001$).

킬레이트요법을 제외한 9가지 보완요법 모두 한의사의 지식점수가 개원의사보다 높았다. 개원의사는 장세척요법(31.1%), 카이로프랙틱(28.5%), 한의사는 카이로프랙틱(78.6%), 테이프요법(60.6%), 향기요법(51.0%), 홍채진단법(49.8%)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완요법 종류에 따라 시술방법을 아는 정도는 개원의사(1.6%~31.1%), 한의사(2.6%~78.6%) 모두에서 큰 변이를 보였다.

개원의사가 한의사보다 보완요법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고, 자신의 전문분야 치료법보다 상대방의 치료법 광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44.1%의 개원의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에 강하게 긍정하였다.

개원의사보다는 한의사가 자연치유력, 건강-질병현상의 연속성, 건강-질병현상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정신-육체이원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4. 고찰

한의사는 개원의사보다 보완요법의 사용경험과 지식이 많고, 보완요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보완요법에 부합하는 건강관을 갖고 있었다. 한의사는 카이로프랙틱, 테이프요법, 향기요법, 홍채진단법, 개원의사는 장세척요법, 카이로프랙틱의 시술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 이들 요법을 중심으로 보완요법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